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총평 및 영역별 특징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분석
영역별 주요 특징 · 연계 양상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총평 및 영역별 특징

1. 총평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난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었다. 6월 모의평가가 지나치게 쉬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험은 본래의 난도를 되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의 특징은 난도 높은 문항이 특정 영역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오답률 상위 10문항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언어와 매체의 경우 독서 4개, 문학 2개, 언어와 매체 4개로 나타났고, 화법과 작문의 경우 독서 6개, 문학 2개, 화법과 작문 2개로 나타났다. 예년 시험에 비해 여러 영역에서 고르게 수험생의 실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BS 교재와의 연계 양상을 살펴보면, 독서 영역의 경우 독서론을 제외한 3개의 지문이 연계 출제되었다. 종 차별주의 논쟁을 다룬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의 연계 체감도가 가장 높았으며, 오피니언 리더를 다룬 사회 지문은 키워드만 연계된 수준이어서 연계 체감도가 낮았다. 전압을 바꾸는 장치인 어댑터를 다룬 과학·기술 지문 역시 연계 체감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문학 영역의 경우 전체 6작품 중 고전 소설, 현대시, 고전 시가에서 각각 1작품씩 총 3작품이 연계 출제되었다. 연계된 작품들은 EBS 교재의 수록 지문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사전에 해당 작품을 공부한 수험생은 내용 이해 및 문제 풀이가 비교적 수월했을 것이다.

9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가 나올 즈음에 평가원은 본수능 출제에 돌입한다. 이때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점을 파악한 뒤 이를 반영하여 본수능을 출제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나 출제 경향 등이 본수능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 예단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의 출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본수능에 대비해야 한다.

2. 영역별 출제 포인트와 특징

[독서]

- ① 지문 독해의 난도 높아짐 :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지문의 독해 난도가 훨씬 높아졌다. 이는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전체적인 난도가 상승한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 차별주의 논쟁을 다룬 주제통합 인문(서양 철학) 지문의 깊이가 상당한 데다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내용이 전개되어서 수험생들이 지문 독해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과학·기술 지문의 경우에는 ‘교류 전압’, ‘직류 전압’, ‘입력 전압’, ‘출력 전압’ 등 문과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 개념들이 다수 제시되어 특히 문과생들에게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 ② 추론형 선지가 많음 : 지문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선지보다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는 선지들이 유독 많았다. 지문의 표현을 선지에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재진술한 선지 표현이 많아서, 단순히 선지에서 지문에 쓰인 것과 같은 표현을 찾아 일치 여부를만 확인하려 한 수험생들은 선지 판단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형 선지들은 독해력 측정 차원에서 평가원이 지향하는 바이므로, 본수능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선지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③ 매력적인 오답이 상대적으로 적음 : 지문 독해의 난도가 높고 추론형 선지가 많았음에도 매력적인 오답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독서 영역의 오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았다.

[문학]

- ① EBS 연계 출제 : 예년과 다름없이 EBS 교재에서 50% 연계 출제되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례적으로 현대 소설이 연계 출제되고 고전 소설이 비연계 출제되었으나,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예년의 기조에 따라 고전 소설이 연계 출제되었다. 본수능에서도 고전 소설은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EBS 교재에 수록된 고전 소설 중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은 미리 학습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고전 시가와 현대시에서도 각각 한 작품씩은 연계 출제되므로 이들 작품 역시 충분히 학습해 두어야 한다.
- ② 출제 작품의 난도 : 연계 출제된 작품들은 2/3가량이 EBS 교재의 수록 지문과 중복되어 해당 작품을 사전에 학습한 수험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독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연계 작품 중에 현대시와 고전 수필은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특히 현대시는 작품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무슨 뜻인지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보기>를 통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지나치게 어렵고 낯선 작품이 출제될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읽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문제의 완성도 높음 : 최근 모의평가에서는 문학에서도 단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다소 독서스러운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작품의 핵심 지점을 제대로 독해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 부분적인 정보를 묻는 문항에서도 다른 부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정오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들이 이번 시험에서 문학 영역의 난도가 높아진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완성도 높은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만큼, 선지들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복습하면 이후 본수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화법과 작문]

이번 9월 모의평가의 화법과 작문은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고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 각 세트마다 한 문항씩 난도 있는 문항을 배치했다. 보통 화법 영역은 평이하게 출제되는 편인데, 이번에는 37번 문항의 난도가 높았으며 경쟁 선지인 ④번을 답으로 고른 수험생들이 많았다.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지문의 정보량이 많아 읽기 부담은 컸을 것이지만, 다루는 주제나 내용이 평이해서 독해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오답률이 높은 문항(37번, 45번)이 있었던 것은, 난도를 높이기 위해 독서와 흡사하게 지문의 표현을 재진술하여 선지를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선지들의 진술 방식을 반드시 점검해 두도록 한다.

[언어와 매체]

이번 시험에서 특기할 점은 언어 영역의 출제 방식이다. 수험생들이 평소 공부해 온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는 39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었다. 이런 문제들에서 오답률 40~50%대의 문항이 3개나 나왔다. 이에 자신이 공부한 문법 지식에만 의존하여 주어진 자료나 선지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푼 학생은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료 분석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므로 본수능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매체 영역은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고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 매체에서는 통상 한 문항 정도가 어렵게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41번과 44번 두 문항의 오답률이 약 30% 정도였다. 지문의 정보량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다루는 내용 자체가 평이하였기 때문에 독해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2027학년도 9모

이감 연계 양상

공통과목 : 독서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독서론 [1~3]	전기류를 활용한 진로 독서	-	-
인문 통합 [4~9]	종 차별주의	수능특강 88쪽 (이감 중요도 AA)	· 시즌3-1차 모의고사 · 시즌5-1차 모의고사 · 시즌3-3차 간쓸개 · 시즌5-1차 간쓸개 · 월간 간쓸개 02 · 온라인 제4차 모의고사 · 온라인 파이널 제1차 모의고사
과학기술 [10~13]	선형 방식과 스위칭 방식	수능특강 17쪽 (이감 중요도 B)	· 시즌4-1차 모의고사 · 시즌5-6차 모의고사 · 시즌2-4차 간쓸개 · 시즌3-2차 간쓸개 · 월간 간쓸개 01 · 월간 간쓸개 02 · 온라인 파이널 제5차 모의고사
사회 [14~17]	오피니언 리더	수능특강 109쪽 (이감 중요도 C)	· 시즌3-1차 모의고사 · 온라인 4차 모의고사

공통과목 : 문학

세부 영역	작품	EBS 연계	이감 연계
고전소설 [18~21]	작자 미상, 「금환기봉」	수능특강 322쪽 (이감 중요도 AA)	· 시즌3-4차 모의고사 · 시즌3-4차 간쓸개 · 월간 간쓸개 03 · EBS 문학 모의고사 시즌1-5차 · EBS 문학 모의고사 시즌2-4차
현대시 + 수필 [22~27]	(가) 장옥관, 「가오리 날아오르다」 (나) 김혜순, 「잘 익은 사과」 (다) 박지원, 「공작관문고 자서」	비연계 수능특강 298쪽 (이감 중요도 B) 비연계	· 시즌4-1차 모의고사 · 온라인 파이널 제5차 모의고사
현대소설 [28~31]	박화성, 「고향 없는 사람들」	비연계	-
고전시가 [32~34]	이진유, 「속사미안곡」	수능특강 67쪽 (이감 중요도 AA)	· 시즌3-4차 모의고사 · 시즌2-3차 간쓸개 · 월간 간쓸개 01 · EBS 문학 모의고사 시즌1-5차

| 인문 통합 | 중심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과 이감 모의고사 지문 모두 '중 차별주의'의 견해를 다루며, 그 주장을 행위 주체성과 관련하여 설명함
- 또한 평가원 <보기> 문항에서 다른 '양상적 인격'의 개념을 이감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동일하게 다룸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이외의 종(種)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할까? 이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중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중 차별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가지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이에 반해 ㉠ **인간 이외의 다른 종은 도덕적 지위가 없거나,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 **누군가의 소유인 동물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고,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면 그 행위자의 심성이 포악해지므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중 차별주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종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으로 옹호된다. 흔히 인간은 다른 종에는 없는 복잡한 사고 능력, 도덕적 이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등의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다른 종과 ㉢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도덕적인 판단과 행위를 자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면 사고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의 범주에 들어오기 어렵고,** 인간에 근접한 정신 능력이 있는 일부 영장류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인간과 다른 종을 구별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면 이러한 정신 능력의 수준에 따라 인간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차별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보 기>—

어떤 개체가 '인격체'이거나 '인격 종'의 구성원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여기서 인격체란 합리적 판단 능력과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인격 종이란 자연 종의 하나로서 그 종의 구성원이 전형적으로 인격체인 종을 말하며, 인간이 그러한 인격 종이다. 여기서 '전형적'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대표적인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다. 더불어 어떤 개체가 현재 인격체에 요구되는 특징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속성 P를 갖는다면 인격 종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P는 어떤 실제 Z가 현재 상황에서는 인격체가 아니라도 실제로 인격체일 수 있었다는 그런 속성이다.

2026 이감 모의고사 시즌5 1차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관련하여 단일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본질적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고통을 피하는 이익이나 쾌락 추구로 얻는 이익처럼 인간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유사한 이익을 동등하게 ㉠ **고려해야 한다.** 싱어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이익을 당연하게 우선시하는 태도를 **'중 차별주의'**로 규정하여 비판한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그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중 차별주의는 인종 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편견이라는 것이다.

위계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행위 주체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행위 주체성이란 욕구와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 **주도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으로,** 대체로 종마다 다른 수준을 보인다. 개구리나 물고기처럼 먹이를 쫓고 위험을 피하는 단순한 단계도 있고, 사자나 침팬지처럼 기억을 활용하고 관계를 맺으며 문제를 ㉢ **해결하는 더 높은 단계도 있다.** 그 정점에는 자의식, 추상적 사고, 자율성 등을 갖추고 **행위 주체성을 온전히 실현한 존재인 '인격'이 있다.** 케이건은 대부분의 성인이 인격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존재도 충분한 심리적 능력을 갖추면 인격일 수 있다고 본다.

케이건은 '잠재적 인격'과 '양상적 인격' 개념을 ㉣ **동원하여** 이에 대응한다. 잠재적 인격은 신생아처럼,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면 미래에 인격이 될 수 있는 존재이다. 양상적 인격은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한 요인이 없었다면 현재 인격이었을 존재로, 영아기에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을 입은 성인이 이에 해당한다. 케이건에 따르면 이 개념들은 신생아나 뇌 손상을 입은 인간을 **침팬지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직관의 근거를 설명해 준다.** 이들이 인간 종에 속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인격이 될 잠재성이 있거나 인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도덕적 지위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 인문 통합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과 이감 모의고사 지문 모두 유대감과 같은 ‘관계’가 도덕적 지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인공 지능과 같은 ‘기계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룸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중 차별주의는 우리가 다른 종과 달리 인간 종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종보다 인간 종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옹호되기도 한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유대감을 갖는 현상이나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 중 전체에서의 유대감은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인간이 같은 집단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갖는 현상은 현연 등으로 연결된 소규모 인간 집단 내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를 벗어나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인간들 간에 유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일 뿐, 규범 원칙이 아니다. 어떤 현상을 있는 대로 기술한 사실을 전제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 원칙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적 윤리의 관점과 달리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을 인공 행위자이자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그중 하나로 ㉠ 윤리적 행동주의가 있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서로 다른 두 실체 사이의 자유 의지, 의도, 의식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속성의 동등성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동등성을 비교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형이상학적 속성을 존재론적으로 부정하거나 그 속성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대신 형이상학적 속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고 도덕적 지위의 판단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패턴에 근거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인공 행위자가 인간과 그 행동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동등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지위를 그 인공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2026 이감 모의고사 시즌3 1차

감정을 표현하는 기계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계와 맺는 감정적 관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윤리학의 쟁점으로 ㉡ 떠오르고 있다. 감성주의자들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려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내재적 속성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기계의 내적 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 속성에 기초한 접근은 그 도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유보하게 만든다.

쿠켈베르흐는 대안으로 ㉣ 관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존재의 내재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맺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 구성된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확장되어 온 역사적 과정도 동물의 내재적 속성이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이 변화한 결과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 어떤 로봇과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그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계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근거가 된다. 관계만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입장에 대해 감성주의자들은 인간이 유대감을 느끼는 대상들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도덕적 고려가 필요한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 벌어질 수 있다.

| 인문 통합 | 중심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과 간쓸개 지문 모두 '중 차별주의'의 주장을 다루면서, 인격체에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함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6 간쓸개 시즌3 3차
2026 간쓸개 시즌5 1차

(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이외의 종(種)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할까? 이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중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중 차별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가지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이에 반해 ㉠ 인간 이외의 다른 종은 도덕적 지위가 없거나,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 누군가의 소유인 동물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고,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면 그 행위자의 심성이 포악해지므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중 차별주의는 인간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종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으로 옹호된다. 흔히 인간은 다른 종에는 없는 복잡한 사고 능력, 도덕적 이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등의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다른 종과 ㉢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도덕적인 판단과 행위를 자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면 사고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의 범주에 들어오기 어렵고, 인간에 근접한 정신 능력이 있는 일부 영장류는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인간과 다른 종을 구별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면 이러한 정신 능력의 수준에 따라 인간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차별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보 기〉

어떤 개체가 '인격체'이거나 '인격 종'의 구성원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여기서 인격체란 합리적 판단 능력과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인격 종이란 자연 종의 하나로서 그 종의 구성원이 전형적으로 인격체인 종을 말하며, 인간이 그러한 인격 종이다. 여기서 '전형적'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대표적인 구성원이 인격체라는 것이다. 더불어 어떤 개체가 현재 인격체에 요구되는 특징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속성 P를 갖는다면 인격 종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P는 어떤 실체 Z가 현재 상황에서는 인격체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인격체일 수 있었다는 그런 속성이다.

평등한 대우의 원칙을 동물에게 적용하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들은 다시 ㉣ 무조건적 반대론자와 ㉤ 조건적 반대론자로 나뉜다. 무조건적 반대론자들은 인간이라는 종(種)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즉 동물을 인간과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예컨대 노직에 따르면 우리가 가족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정당한 것만큼이나 같은 인간을 동물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자신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인종을 ㉥ 경시하는 인종 차별주의를 정당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쟁에서 상어는 인간 종에 속하는 개체인 개별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진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자율적인 존재인 인격체로서의 개별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배아에 대한 실험 또한 허용될 수 있다. 반면 마르퀴스는 희생자로부터 '가치 있는 미래'를 빼앗기 때문에 살인은 나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배아는 인격체가 아니지만 '가치 있는 미래'를 가지는 개별자라는 점에서 배아 실험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과학·기술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이 연계 지문의 중심 소재인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바꾸는 어댑터의 원리를 다루었다면, 이감 지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심 소재인 교류 전압의 특징을 전자기 유도 현상과 연결하여 설명함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6 이감 모의고사 시즌4 1차
2026 이감 모의고사 시즌5 6차
2026 간쓸개 시즌2 4차, 시즌3 2차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은 220V, 주파수가 60Hz인 교류 전원으로 초당 60번 크기와 방향이 규칙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소형 전기 기기들은 5V에서 12V 정도의 직류 전원을 공급해야 작동한다. 따라서 220V의 높은 교류 전압을 낮은 직류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

어댑터에는 선형 방식과 스위칭 방식이 있다. ㉠ 선형 방식은 변압기, 정류기, 평활 회로, 정전압 소자로 구성된다. 변압기는 입력되는 전압에 변화가 생기면 자기장이 유도되어 출력 측에 발생하는 교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장치이다. 전원이 공급된 후, 변압기를 통과하면서 크게 낮아진 교류 전압은 정류기에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전압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전압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평활 회로가 사용된다. 평활 회로에는 에너지 저장 소자가 있어, 전압이 높을 때 일시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압이 낮아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 어댑터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는 전기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이 고정된 정전압 소자를 이용하여 안정화된 직류 전원을 만든다. 예를 들어 5V 정전압 소자에 출력 전압보다 높은 9V 전압이 들어오면, 4V에 해당하는 전력을 열로 소모하고 필요한 5V만 출력한다.

전류가 흐르면 금속의 전기 저항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며, 그 열의 양은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유도 가열 기술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집중적으로 열을 발생시켜 열처리를 수행한다. 열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깊이를 '경화 깊이'라 하며, 이는 교류 전류에서 주기가 단위 시간당 반복되는 횟수인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 표면에서의 맴돌이 전류는 세지고 경화 깊이는 얕아진다. 금속의 물성도 경화 깊이에 영향을 미친다.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인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자기장을 잘 받아들이는 정도인 투자율이 클수록 금속 표면에서의 맴돌이 전류가 세져서 경화 깊이는 얕아진다. 따라서 유도 가열을 이용한 열처리에서는 금속의 전기 전도도와 투자율을 고려하여 교류 전류의 주파수를 적절히 ㉡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경화 깊이를 비교적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르면 금속의 전기 저항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며, 그 열의 양은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유도 가열 기술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집중적으로 열을 발생시켜 열처리를 수행한다. 열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깊이를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입자 주위의 공간에 형성되는 장(場)을 매개로 하여 전달된다. 전하를 띤 입자인 하전 입자들 간에는 ㉢ 전기장(電氣場)을 매개로 전기력이 전달되고 자석들 간에는 ㉣ 자기장(磁氣場)을 매개로 자기력이 전달되는데, 전기장뿐 아니라 자기장 역시 하전 입자에 의해 형성된다. 본래 하전 입자의 주위에는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전 입자 중 음전하를 띤 ㉤ 전자가 힘을 받아 가속 운동을 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때 전류의 크기가 클수록 전류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오랫동안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되면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선 주위에서 자기장이 변화하면 그로 인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다.

| 사회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과 이감 모의고사 지문 모두 주류 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과 그 특징을 다룸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세기 중반, 주류 미디어인 신문, 잡지, 라디오를 통해 선거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선거 캠페인의 영향력을 연구하던 라자스펠트와 그의 동료들은 뜻밖의 현상을 발견하였다. ㉠ 미디어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에서 비롯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핵심적 요소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 이론은 미디어 이용자를 상호 고립되어 원자화된 존재로 파악한 대중 사회 이론의 가정들 ㉡ 벗어나 가족, 친구와 같은 1차적 사회 집단의 유대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학의 영역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했다. 또한 미디어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입장을 위축시켰고, 이를 계기로 미디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주류로 부상하였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다.

오피니언 리더는 자신이 정보 제공자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자부심을 가진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선구자,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인 관계의 중심에 선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의 정보 선택을 돕고 인터넷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공론장으로 만드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 커졌다. 이들은 일반 이용자보다 뉴스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신문, 텔레비전 등의 이용 동기도 높고 실제로 이들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한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면서 미디어 기반 정보 제공자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자신이 정보를 창출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2026 이감 모의고사 시즌3 1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었으나, 이용자를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여 정작 사람들이 왜 특정 미디어를 선택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언론학자 카츠 등은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가'보다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제안했다. 이 이론은 이용자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이 왜 미디어를 이용하고 그로부터 어떤 충족을 얻는지를 다룬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며 미디어는 그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한다. 가령, 인식을 확장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인지적 욕구는 뉴스 시청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음으로써 충족된다. 미디어가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그러한 욕구는 충족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특정 미디어의 이용은 이용자의 능동적 선택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용자는 미디어 이용 전의 '기대 충족'과 이용 후의 '획득 충족'을 적극적으로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용 태도를 바꾸기도 한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이용자가 메시지 생산 역할을 겸하고 있는 미디어인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을 설명하는 데에 특히 적합하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인 통합적 욕구와 사회 통합적 욕구가 모두 관여한다. 개인 통합적 욕구란 의견 개진과 상대방부터의 인정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아를 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욕구이며, 일종의 교류 욕구인 사회 통합적 욕구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확보하려는 욕구이다. 이용자가 이 두 욕구를 모두 충족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정체성과 관련한 정서적 몰입도가 높아진다.

| 고전 산문 | 작품 및 선지 적중

- 평가원 지문과 이감 모의고사 지문에서 「금환기봉」을 공통으로 출제함
- 평가원 문항에서 다른 남장 모티프를 이감 모의고사 <보기> 문항에서도 다룸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학사가 듣기를 다하며 밝게 깨달아 서안을 치며 차탄 왈,
 “어질다, 너의 소견이여. 밝고 높음이 오히려 내가 미치지 못하리도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천하 사람이 다 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더니 일조에 건곤이 바뀌어 옥당 대신이 심규 아녀자가 되니 어찌 비감하지 아니하리오. 칠 년 공명이 속절없이 되었도다.”
 말을 마치며 길이 탄식하더라.

- 작자 미상, 「금환기봉」 -

20. 「남북 입기」와 관련하여, [A], [B]의 ‘장 소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남북 입기를 허락했음을 자부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자신이 남북 입기를 중단하면 사람들이 이를 애석하게 여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처음으로 남북 입기를 시작할 것을, [B]에서는 중단했던 남북 입기를 재개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남북 입기를 과거 응시를 위한 조건으로, [B]에서는 남북 입기를 관직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남북 입기를 두고 부친을 향한 윤리적 의무와 자신을 위한 사회적 성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2026 이감 모의고사 시즌3 4차

‘그 소저 분명히 한림의 처도다. 가히 어췌을 알리도다.’
 하고, 학사 말을 타고 한림의 집에 오니, 한림이 맞아 ㉠중현에 들어가 좌정하고 술을 내어 와 권할새 진귀한 음식이 다 뿔뿔에 보던 바라. 학사 잔을 잡고 문 왈,
 “소제 형의 부르심을 입어 성찬을 받으니 지극 감사하거니와, 아지 못개라. 형이 객을 대하여 화색이 없고 슬픈 기색이 눈가에 가득하니 집안에 무슨 연고 있나이까?”
 한림이 대 왈,
 “오늘 그대 누이의 영혼을 위로하다가 그대를 보니 자연 슬픈 빛이 있는가 하나이다.”

- 작자 미상, 「금환기봉」 -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환기봉」은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결연을 중심으로 한 소설로, 여주인공 장선빙은 남정을 한 채 과거에 급제하고 정혼자였던 김희경과 재회한다. 남정은 여주인공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편, 남녀 주인공의 결연을 지연시키면서 서사를 긴장감 있게 진행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남주인공이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정보의 격차로 인한 흥미가 고조되는 것이다.

| 갈래 복합 | 작품 및 선지 적중

- 평가원 지문과 이감 모의고사 지문에서 김혜순의 「잘 익은 사과」를 공통으로 출제함
- 평가원 〈보기〉 문항에서 작품을 이미지와 연상을 중심으로 설명한 관점을 이감 모의고사 〈보기〉 문항에서도 유사하게 다룸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나)

백 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 치르르치르르 도는 소리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미소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바퀴살 아래에서 자꾸만 뺨아지는 소리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뺨보다 더 차가운 한 송이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손등을 덮어주고 가네요
그 작은 구름에게선 천 년 동안 아직도
아가인 그 사람의 냄새가 나네요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의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둥글게 둥글게 길을 깎아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돌아온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없이 깎이고 있네요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그렇게 큰 사과를 손가락으로 파내서
잇몸으로 ㉡ 오물오물 잘도 잡수시네요

- 김혜순, 「잘 익은 사과」 -

[B]

2026 이감 모의고사 시즌4 1차

(가)

백 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치르르 치르르 도는 소리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미소에 실려 온 나락들처럼
바퀴살 아래에서 자꾸만 뺨아지는 소리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뺨보다 더 차가운 한 송이 구름이
㉠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손등을 덮어 주고 가네요
그 작은 구름에게선 천 년 동안 아직도
아가인 그 사람의 냄새가 나네요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의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둥글게 둥글게 길을 깎아 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돌아온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깎이고 있네요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그렇게 큰 사과를 손가락으로 파내서
잇몸으로 오물오물 잘도 잡수시네요

- 김혜순, 「잘 익은 사과」 -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상상력은 일상의 현실을 이미지의 세계로 구성하는 데 관여한다. 그러한 점에서 시적 현실은 실재와는 다른, 창조된 현실이다. 여기에는 세계에 대한 화자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가)는 화자가 달밤에 탐의 덮개에서 유사한 모양의 자연물을 떠올리고 공간의 성격이 돌연 변화됨을 느낌으로써 달밤은 생명력이 가득한 환상의 바다로 전환된다. (나)는 화자가 자전거를 타면서 접한 대상들에 대한 감각적 경험과 이 과정에서 연상된 대상들을 서로 결합함으로써 마음은 삶의 에환을 감싸안은 상상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 ① (가)에서 '아득한 기쁨'인 '그 빛'은, '눌러 덮은 오랜 자국'을 지닌 가오리가 비상하여 '희디흰 배때기'를 드러낼 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환희로 볼 수 있겠다.
 ② (가)에서 '천 마리 가오리들이 날아다니는 남산은, '등짝 검은 가오리'가 '뒤틀'린 소나무들 사이로 날아다닌다는 점에서, 환상적이면서 어두운 바다의 이미지로 볼 수 있겠다.
 ③ (나)에서 '큰 사과'가 '깎이고 있는데요', 골목을 도는 것을 사과 깎기로 보는 상상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마을이 '큰 사과'라는 상상의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가)에서 '삼층석탑 옥개석'이 '지느러미'를 펼치는 것과 (나)에서 '그 사람'이 '천 년 동안' '아가인' 것은, 각각의 시적 형상이 실재와는 다른, 창조된 현실임을 보여 주는군.
 ⑤ (가)에서 '뽕뽕이' '불거진다'는 것과 (나)에서 '한 송이 구름'이 '손등을 덮어주는' 것은, 각각 활력과 위로의 이미지를 상상한 화자의 긍정적 시각을 보여 주는군.

2026 이감 모의고사 시즌4 1차

23. 다음은 (가)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연상에는 감각적·의미적 유사점을 바탕으로 하는 유사성에 기초한 연상과, 시·공간이나 상황의 맥락상 서로 밀접한 것들을 연결하는 인접성에 기초한 연상이 있다. 가령 '번개'에서 '천둥'을 떠올린다면 시각적 유사성에 기초한 연상이, '천둥'을 떠올린다면 시간이나 상황적 인접성에 기초한 연상이 된다. 『잘 익은 사과』는 자전거를 타는 일상의 순간과 그로부터 뻗어 나온 단편적 이미지들을 연상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연결 지어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장면의 감각성과 그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다음 표를 바탕으로 이 시에 나타난 이미지의 연결 양상을 살펴보자.

이미지 1	이미지 2	연결점	
자전거 바퀴 소리	여치 소리	섬 없이 울리며 귀를 자극함	㉠
가을바람	한 송이 구름	차가움의 감각	㉡
엄마의 눈물	손등을 덮는 행위	슬픔에 대한 위로	㉢
자전거 타기	사과 깎기	등글게 도는 행위	㉣
사과	할머니	먹는 주체와 먹는 대상	㉤

- ① ㉠: 이미지 1은 시적 상황을 담은 것이고 이미지 2는 그로부터 연상된 것으로서, 시인은 이미지 2를 이미지 1의 앞에 두어 독자가 연상된 감각에 먼저 집중하도록 하고 있어요.
 ② ㉡: 이미지 1과 이미지 2는 차갑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사성에 기초한 연상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③ ㉢: 이미지 2는 이미지 1의 상황과 맥락적으로 연결되는 행위를 담은 것으로서, 삶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④ ㉣: 이미지 1과 이미지 2는 모두 시각적으로 등글게 보이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인접성에 기초한 연상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⑤ ㉤: 이미지 1과 이미지 2는 행동의 대상과 주체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시인은 자전거 타기라는 일상의 체험으로부터 연상된 대상이 먹는 상황을 제시하며 시상을 매듭짓고 있어요.

| 고전시가 | 작품 및 선지 적중

- 평가원 지문과 이감 모의고사 지문에서 이진유의 「속사미인곡」을 공통으로 출제하였으며, 지문의 상당 부분이 일치함
- 평가원 <보기> 문항에서 다른 유배의 상황과 그로 인한 정서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두 문항에 걸쳐 다룸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6 이감 모의고사 시즌3 4차

하사받은 책 천 권이 고각(高閣)에 묵혔으니
종이 벌레 다 먹은들 그 뒤라서 벌에 쪼며
㉔ 정원에 가득한 꽃 잘라 벤들 뒤 금할꼬
천하에 호소할 데 없는 이 나밖에 또 있을까
㉕ 주 문왕(周文王) 기산(岐山) 다스릴 제 인정(仁政)을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리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 다시 의지할꼬
시운이 불행하여 천 리를 떨어져 있으니
내 신세 홀몸인 줄 입이 모르실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허물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이오나
근본을 생각하니 임 위한 정성일세
㉖ 일월 같은 우리 입이 거의 아니 살피실까
살려 주신 이 은혜를 갚기로 기약하나
광주리 든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 사리
연잎으로 옷을 짓고 연꽃으로 치마 지어
상자 속에 두어신들 늘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를 밟아 건너
옥루 높은 곳에서 밤마다 임을 뵈서
한집같이 오가는 문답 말소리 울리는 듯
임금이 불러 문답하던 가태부가 이 같을까
어촌 멀리 닭이 울어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임 옥음(玉音)은 귤가에 완연하고
우리 임 화로 향을 옷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생시로 삼을런가
두어라 왕께서 고쳐 헤아리길 날마다 바라노라

- 이진유, 「속사미인곡」 -

[A]

한밤중에 잠이 없어 이불 두르고 일어나 앉아
신세를 자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나요
습한 바다에 병이 든들 구호할 이 누구 있으며
서울의 옛집은 비웠은들 뒤 지킬꼬
하사받은 책 천 권을 고각에 묵혔으니
좀벌레 다 먹은들 그 뒤라서 간수하며
뜰에 가득한 꽃을 자르고 벤들 뒤 금할꼬
천하에 죄 없는 이 나밖에 또 있을까
주 문왕(周文王) 기산 다스리던 어진 정치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리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님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시운(時運)이 불행하여 천 리에 떨어져 있으니
내 신세 외로운 줄 님이 모르실까

- 이진유, 「속사미인곡」 -

[B]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죽사미인곡』은 낯선 섬에 유배된 사대부 작가의 유배 가사이다. 유배형은 학문을 닦고 백성을 다스리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형의 종결은 임금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배객의 삶은 불안하다. 『죽사미인곡』의 화자는 임금과 함께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가운데 심적 고통을 토로한다. 이는 모두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정신적 고부이다.

- ① 화자가 '주자의 경서'를 펼쳐 보는 한편 '고각'에 있는 책을 열러하는 데서, 자유롭지 못한 유배지에서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화자가 '천지간 홀로' 있는 낯선 섬에서 '다시 의지'할 대상이 '우리 임'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데서, 임금과 함께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화자가 '내 신세 홀몸'임을 이미 모르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고 '왕께서 고쳐 해아리길' 염원하는 데서, 임금의 새로운 정치적 판단을 소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화자가 '옛 허물'을 헤아리며 '망령됨'이 죄라고 밝히는 데서, 자신이 죄를 저지른 동기를 부끄러워하는 심적 고통을 엿볼 수 있군.
- ⑤ 화자가 자신을 '가을 부채'에 빗대며 '팽주리'에서 벗어날 때를 몰라 한탄하는 데서, 유배객으로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느끼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군.

2026 이감 모의고사 시즌3 4차

28. (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족한 자신을 향한 임의 관대함에 감사해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유배를 가는 상황에서 가문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떠난 서울의 상황을 염려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배에 처하게 된 이유를 돌아보며 임을 위한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음을 자책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유배지에 홀로 있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에 대한 상념을 드러내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대부들의 시가에서는 군신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드러나곤 한다. (가)는 유배형을 받은 신하의 작품으로, 작가는 남녀 관계와 결부한 표현을 바탕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과 임금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나)는 대궐에 근무하던 신하가 임금이 홍문관에 하사품을 내린 일과 관련해 지은 작품이고 (다)는 벼슬 없이 향촌에 머물던 선비가 임금의 승하 소식을 듣고 지은 작품으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을 통해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① (가)의 '자색도 없는 나요'와 '백 년을 해로한들'에서, 작가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와 결부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의 '님의 은혜 이럴수록 시기 질투 더 심하'다는 진술에서, 자신이 임금의 남다른 총애를 받은 탓에 멀고 험한 섬에 유배 당했다는 작가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가)에서 '우리 님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라고 한 것에서, 임금이 자신을 유배에서 풀어 주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